

2023년 하반기 '화순군 귀농학교 개강'

귀농·귀촌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이나 이주 5년 이내 대상 성공적 농촌 정착 돕기 위한 교육 지원...30명 교육생 등록



화순군은 지난 22일 '화순귀농학교(농주면 구 북초등학교 내)'에서 개강식을 하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순귀농학교는 (사)화순군 귀농·귀촌 협회

회가 주관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이나 화순군 이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2023년 하반기 20기 귀농학교는 30명의 교육생이 등록하였으며, 교육생 중 80%는 광주 등 도시지역 거주민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귀농학교 교육과정은 △화순군 귀농 정책 및 제도 △귀농인을 위한 세법 △버섯재배 기초 지식 △GMO 안전한 먹거리 △올력 및 현장 교육 등 총 22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8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귀농학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지원센터(061-379-366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남도안전학당, '안전한 장성' 만든다

교통·생활 등 분야별 안전교육 실시... 31개 마을 500여 명 대상

장성군 '남도안전학당'이 고령 주민의 생활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도안전학당'은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촉 강사들이 직접 마을회관을 찾은 방문형 안전교육이다. 장성 지역에선 31개 마을 500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교통안전(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이용) △생활안전(화재 대처, 농기계 안전사고) △계절·시기별 안전수칙(폭염, 홍

수 등 기후성 재난) 등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27개 마을 40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을 받았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교육 내용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군은 일정이 마무리된 뒤 추가 교육을 신청할 계획이며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성=김수권기자

장성=김수권기자



전남 구례군-부산 수영구,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자매결연 도시 청소년 화합의 장

전남 구례군은 8월 18일 부산 수영구 청소년 30명을 초청해 구례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수련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는 1998년 구례군과 자매결연을 한 도시이다. 구례군은 자매결연을 한 두 도시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 캠프에 참여한 구례군 청소년 30명과 수영구 청소년 30명은 지리산 스카이라인과 수상 레저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 앞서 8월 15일에는 구례군 청소년 30명이 수영구를 방문해 수영구 청소년들과 함께 패들보드(SUP), 생존수영, 미니게임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했다.

김순호 군수는 "자매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안목을 넓혀 더 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두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농업인재활성센터에서 필라테스하세요"

곡성군의 농업인재활성센터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농업인재활성센터를 지난해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다시 문을 열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더 다양하고 맞춤형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재활성센터 1층은 재활운동실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 재활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15종의 장비를 활용해 고령 농업인들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진료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필라테스 수업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필라테스 수업은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정된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여 수업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운동교실 참여자들은 체성분 검사를 통해 운동 전·후 근력과 체중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필라테스는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해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수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건강한 에너지를 얻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찾아가는 음악회 '담양 국제 앙상블 페스티벌'

26일 오후 5시 담빛문화지구 쉼마뮤직홀에서 첫 번째 공연 시작

담양군에 조성된 문화 소통 공간 중 하나인 담빛문화지구 '쉼마뮤직홀'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담양 국제 앙상블 페스티벌' 공연이 26일부터 개최된다.

'담양 국제 앙상블 페스티벌'은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쉼마뮤직홀, 담빛예술창고에서 각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어울림과 조화, 2인 이상의 노래나 연주를

뜻하는 '앙상블'을 주제로 현악 4중주, 재즈 앙상블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력과 음악가들의 다양하고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담양군 곳곳에 조성된 문화 소통 공간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추진해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청년 1인 가구 즐거운 아침식사 3기 참여자 모집

나주시가 혼자 사는 청년들의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아침밥 밀키트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 1인 가구 즐거운 아침식사' 3기 사업 참여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영양을 고루 갖춘 정량의 식재료(비조리)가 주 2회, 총 6주간 무료로 제공된다. 동시에 정보공유방(오픈채팅방)을 통해 레시피와 다양한 식단구성 방법을 교

육·안내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 대상은 20세부터 49세까지 청년 1인 가구다. 나주시청·보건소 누리집 팝업창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앞서 7월까지 20~49세 60가구를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식재료를 제공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층, 특히 청년 1인 가구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나주=송준표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